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채상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저는 마음 속으로 '그래, 수술은 잘 되려... 는가 봐' 하며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 역시 비몽사몽간에 부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8시경에 아이는 병실로 옮겨졌으며 9시경 회진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전신 마취시킨 후 수술실에 들어가 메스를 대려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다시 한번 맞추어 보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뒤를 보니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었으며 다시 또 메스를 대려 하니 똑같이 그 이야기가 들렸답니다.

원래 정형외과 의사들은 뼈를 맞추고 주무르고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뒤편이 나오고 산산 조각이 난 뼈를 어찌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린 아이고 후유증도 만만치 않으니 다시 한번 주무르고 땀고 해서 뼈를 대충 맞추다 보

수술 안하고 기적처럼 치료

두달 후 다시 고관절 골절

니 뒤편이 나온 뼈가 신기할 정도로 들어 가 더럽습니다. 오!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시여, 고맙고 고맙습니다.

불보살의 불가사의한 위신력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었습니까?

퇴원 후 두달 동안 아이는 꼼짝 할 수 없었으며 학교 역시 다니지 못하고 있었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기적에 대해 전 항상 고마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중간고사가 다가와 아이는 시험을 치르러 학교를 가게 되었고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날, 또다시 제게 커다란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밤중 중생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보고 난후, 교문 밖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그림·김홍인

“엄마 나 못 일어나” “다 나았어 일어나봐”

“민우 어머니, 민우가 많이 다쳤는데 어서 오세요.”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를 또 다친거야.” 달려가 보니 아이는 운동장에 큰 대자로 누워있었고, 그런 아이를 보고 숨이 멎

춰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니다. 자연인즉 시험이 끝나고 운동장으로 나오는데 축구공 하나가 ‘포르르’ 굴러 오는 것을 보고 두 달이나 집에서 누워 좋아하던 운동도 못하던 아이는 ‘이때다’ 싶어 오른발을 들어 공을 차는 순간, ‘푹’ 소리와 함께 고꾸라지고 말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119의 도움으로 다시 병원으로 향하였고 의사들은 아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형질을 짚어 넣어 운반한 뒤 수없이 X-ray를 찍고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시 응급실에 누워 있던 아이는 전날 밤을 꼬박 새운지라 잠이 들었던가 봅니다.

저는 이때 참으로 아이가 미웠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겨우 두 달이 지났잖아’

하며 한숨을 내쉬는 제게 아이는 잠이 깨었는지 “엄마, 나 꿈에 절에 다녀왔어” 하지 않았습니까? 전 시큰둥하게 “넌 그 잠시 동안 멀리도 갔다 왔구나”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혼자 절에 갔기에 엄마가 걱정할까봐 전화를 하려 했는데 그곳에는 전화가 없었고 마침 지나가시는 스님을 뵈고 여쭙어 보니 그 스님 말씀이 법당에 가서 부처님 사타구니에 손을 대고 마음속으로 ‘엄마, 나 잘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하면 너의 엄마가 아실거야’ 하시더라고요.

아이는 부처님의 사타구니에 손을 대고 이야기 하였고, 곧 잠이 깨었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민우야, 너 일어나 봐” 하니 아이는 찻짚 매며 “엄마, 나 못 일어나.”

불과 5분, 아니 3분전에 들것에 실려온 아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전 아이에게 일어날

이번엔 나에게 시련 찾아와

가족들 충격 안받게 비밀로...

것을 중용하였습니다.

“너, 다 나았어, 일어나도 돼. 얼른 걸어봐” 하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은 듯 아이는 망설였지만 급기야 일어나 제법 멀리에 있는 화장실까지 다녀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의사들이 뛰어 왔으며 옆에 있던 환자들도 눈이 휘둥그레 졌으며 X-ray상 우리 아이는 고관절이 부러져 기브스를 하고 8주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실제 상황은 그와는 너무나 다르게 유유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렇게 믿기지 않는 일들이 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저의 가족은 항상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정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련의 끝은 아니었는지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게 하심이었는데 2000년 제게 커다란 시련이 다가 왔습니다.

좌우 가슴에 종양이 4개씩 생겨서 절제 하기도 그렇고 치료를 해 보아야 할 것 같다는 비극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에게 초유 한 번 먹이지 못한 저는 형시 유방암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더이러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당황 하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기 에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는 비밀로 했습니다. (계속)

킬레이 수행일기 <상>



김성규 영남대 의대교수

불교를 처음 접했던 고교시절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인다. 여름 방학 동안 남산 칠불암에서 함께 공부했던 그리고 보고 싶은 얼굴들이며, 불적을 찾아 천방지축 돌아다니던 그때 그 모습들.

남산을 뒤흔들어 놓던 새벽 종성과 목탁소리, 옛날 원효와 대안 스님이 참선했다던 참선대에 앉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경이로움. 남산에서 하룻밤을 두고 나면 세속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것처럼 반짝이는 눈빛, 설악은 수행자들의 모든 재물을 말없이 바라보고 계시던 칠불암 부처님, 남산의 그 혼 속에서 나의 신행은 익어가고 있었다.

분황사와 경주고등학교 강당을 들락거리며 영남불교학생회 300여명이 함께 가진 동계수련대회, 경주시내도 랑석을 마치고 낮을 때 너무 추워 손과 발이 모두 꽁꽁 얼어붙었고,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말도 할 수 없었던 기억들.

무엇을 믿고 있으며, 어떻게 생활하려고 노력해 왔던가 되돌아 본다.

첫째, 나는 인과법칙을 믿고 있다. 인과법칙을 확신하는데서 우리의 삶의 행태는 구원과 종속에서 벗어나, 창조로 이워지며 자기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진실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고교때 경주 남산서 수련회 ‘환희심’

믿음과 수행이 돌아닌 삶 되도록 노력

표창사 수련대회를 준비한다고 하이터이 풀어 수 십년 묵은 때를 땀 뻘 뻘 흘리며 믿고 밀던 일이며, 해산 스님의 그 자상한 미소. 수련대회중 1080배를 마치고 낮을 때 새벽의 의미와 함께 온 전신을 엄습한 환희심은 20년이 지난 오늘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한 감동으로 남아있다.

그때 불교 중흥하자고 다짐했던 수많은 그러한 얼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직도 불자로 남아 있을까? 생활을 탓하며 더러는 개종도 했을 법하다.

결국 인간이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제일의(第一義)적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명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통과제이며, 우리의 삶 또한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이 명제를 구체화 해 가는 것이다. 믿음과 수행을 통하여 현실적인 삶을 소중하게 할 수 있고 과거의 잘못은 벗어날 수 있으며 다가올 미래는 광명과도 같은 밝은 빛이 될 것이다.

평소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불교 신행인으로서 나는

둘째 나의 믿음이 수행으로 이어지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 수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생활 속에 불교가 심어졌는가? 생활과 불교는 둘이 아니다. 절에서 법회를 보고 있을 때만 불교인이고 집에 돌아오면 불교와 무관한 것이 우리 불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 수행은 믿음을 성숙시켜 열매를 맺게 하는 거름과도 같고 흙뜨려져 있는 것을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작업이다.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자유와 평온함이 바로 생활과 직결되어야 하며 생활 자체가 수행의 도량이여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단 30분이라도 좋다. 참선을 하든, 독경을 하든, 기도를 하든 자기 것이 될 때까지 매일 행해야 한다. 그 행함이 자기 자신의 한 부분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불교인이 될 수 있으며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데 자기 자신을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이니이다. 한 주를 보내고 정리하면서 다시 맞이할 새로운 주를 설계하면서, 스님의 청음과 함께 가장 소중한 시간에 법회는 열려야 한다. (계속)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력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x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直) (02)737-8881(代)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지난해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